

1 개요

두리빌렛당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 본풀이는 제주시 내도동 바닷가에 있는 두리빌렛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.

백동지, 김동지는 사신을 제치한 이형상 목사를 무사히 바다 건너에 태워주고 귀향하던 중 파선의 위기를 만났으나 구렁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자 그 구렁이를 당신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다.

2 내용

백동지, 김동지 영감이 김녕리 궤넬기 사신(蛇神)을 제치한 이형상 목사를 무사히 바다 건너 태워 준 뒤에 제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, 갑자기 배 밑창에 구멍이 나서 파선의 위기에 직면케 되었다. 이에 살려 달라고 빌었더니, 난데없이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구멍 뚫린 배 밑창을 막아 주었다. 그 덕에 두 사람은 무사히 돌아 올 수 있었다. 김동지 부인이 그 구렁이를 치마폭에 담아다가 집에서 모시다가, 갯가 두리빌레로 옮겨 모셨다.

3 특징

내도동 두리빌렛당은 용녀부인을 모시는 곳이면서 제일이 초하루·보름인데, 이것은 전형적인 해신당의 면모에 해당한다. 본풀이를 통해서 볼 때 용녀부인은 전형적인 조상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. 조상신적인 존재가 당신으로 좌정하여 해신에 해당하는 직능을 맡는 사례는 이 밖에도 더러 있다.

4 핵심어

내도동, 백동지, 김동지, 궤넬기, 사신, 이형상, 구렁이, 난파, 두리빌레, 용녀부인

5 원전 서지사항

두리빌렛당 두리빌레 용해부인 할마님(진성기, 《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》, 민속원, 1991)

6 관련 자료